

日本 嵯峨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Saga Edition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嵯峨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2. 嵯峨版의 概要 | 6. 嵯峨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3. 嵯峨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 7. 結 論 |
| 4. 嵯峨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참고문헌> |

< 초 록 >

(1) 嵯峨版 활자본이란 角倉素庵과 本阿彌光悅가 京都의 嵯峨 지역에서 慶長 11년(1606)경부터 약 10여 년간 木活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36판본을 지칭한다. 假名와 연각 활자·방점 활자·호분과 운모 장식 책지·양면 인쇄 등이 특징이다.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함은 물론, 서체의 미감도 매우 세련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정연한 편이다. 빼놓여진 문자는 많지 않고, 墨色 濃淡은 다소 균일하지 못하다. 광곽은 2종에만 있는데, 꼭지점이 1~2mm로 작게 벌어져 있다. 교정이 충실한 편이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묵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과 쓸림 등이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겨우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상급을 유지하고 있다.

要語: 日本 嵯峨版, 高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ABSTRACT >

(1) The Saga's type edition refers to 36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s by Suminokura Soan and Hongami Koetsu in Saga, Kyoto for over 10 years since 1606. Its main features include Japanese character type, multiple-character type, punctuation type, decoration book printing paper with shell powder and sprinkled mica, and double-sided printing.

(2) The material for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sufficiently shows script writing style and the types are highly refined. Its technical quality is upper-lower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are few skewed characters, but the tone of ink color is somewhat inconsistent.

The edition frame is only in two editions and the vertex is about 1~2mm apart. The corrections are generally precise. The technical quality is middle-upper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is inconsistent, with substantial variance in ink color thickness as well as frequent spreads and lump of chinese ink. The technical quality is barely middle-middle grade.

(5) The type printing quality is middle-upper grade.

Key words: Japanese Saga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투고일: 2019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7일
서지학연구, 제78집, 91-125,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91]

1. 緒論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임진왜란 발발 직후인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해져서 慶安年間(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활자 이전의 목판인쇄는 內典(佛書)과 일부 漢籍 위주였다. 조선으로부터 가져온 활자는 인쇄 방법이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서 京洛의 출판계에 새로운 유행을 일으켜 일본 출판문화의 역사를 바꾸는 일대 전기가 되었다.

고활자판의 등장과 유행은 불서와 한적에서 日本書에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물론 중세까지 일본의 출판문화를 독점했던 목판인쇄에 의한 불서와 한적이 쇠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서도 출판 영역을 확대하고, 德川家康의 신문교정책에 편승하여 한적의 간행도 활발해졌다. 따라서 가깝게는 출판의 성행이지만, 멀리 보면 嵯峨版 이후의 출판문화는 일본서 유행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고허자 인쇄의 간행 주체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地方의 사찰에 의한 인쇄, 개인 및 서사에 의한 인쇄로 3대별할 수 있다. 위정자와 사찰은 활자 전래 초기의 활자본 서적 간행 활동을 주도하였다. 後陽成天皇·德川家康 등에 의한 한적과, 本國寺·比叡山·高野山·三要素元吉(圓光寺)·圓智(要法寺) 등에 의한 고허자판 불서가 속속 간행되었다.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私家版과 坊刻版(町版)이 출현하였다. 특히 小瀬甫庵·如庵宗乾·五十川了庵·延壽院 玄朔·醫德堂 守三·梅壽軒·下村生藏·下村時房·鳥養道晰·秦宗巴·松田道以 등 의사를 중심으로 한 독지가의 출판활동에 의하여 출판물의 양적인 확대는 『東鑑』·『太平記』 등 史書는 물론, 謠本·和歌·物語 文學이라고 하는 平假名 혼용의 일본 고전문학서가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嵯峨版은 『伊勢物語』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필사한 듯 이어서 흘러 쓴 連綿체 서풍과 우아하고 풍부한 삽화 및 책지의 장황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사찰판이 쇠퇴하면서 등장한 사가판과 방각판 중에서 일본의 인쇄문화사 상에서 독특한 활자 인쇄 문화를 형성한 嵯峨版 활자본을 대상으로 인쇄기술 요소를 분석하였다. 고허자판 중의 駿河版·伏見版·天海版 등은 활자와 인쇄용구가 지금도 남아 있음에 비하여, 嵯峨版은 그러한 실물은 물론, 기술 요소를 기록한 문헌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 판본에 남아 있는 자적을 근거로 하였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소장처 목록의 저록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수정 또는 구체화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허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嵯峨版의 개요·활자 인쇄의 3요소¹⁾인 활자의 제작기

1) 여기에 해판 및 재사용을 더하면 활자인쇄의 충분 조건인 4요소가 된다.

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²⁾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嵯峨版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판본학 연구에서 서영은 필수적이다. 한국서지학회의 발표논집에 수록한 서영을 참고하기 바란다.³⁾

2. 嵯峨版의 概要⁴⁾

2.1 嵯峨版의 定義

2.1.1 嵯峨版의 刊行 主體와 名稱

林羅山, 林鷲峯 父子의 기록인 萬治 2년(1659) 跋 『羅山先生集』에 角倉素庵(吉田玄之)⁵⁾의 서적 간행 활동에 대하여 “吉田玄之, 新刻史記於嵯峨”라고 있다. 이를 寬文 8年(1668) 刊 『鷲峯先生林學士文集』에서는 “嵯峨板大本” 또는 “嵯峨本”이라고 하고 있다. 林羅山의 기록은 慶長 11년(1606) 경이므로 素庵이 司馬遷의 『史記』를 그 무렵에 간행했던 것은 확실하며, 그것을 寬文년간(1661-1672) 무렵에 “嵯峨本”이라고 칭한 것도 의문의 여지없다. 또 자신의 스승인 藤原惺窩의 사후, 스승의 저작인 『文章達德錄綱領』을 대신 편찬하였다. 이상에 의하면 素庵의 嵯峨版 간행자설은 분명하다.

嵯峨版의 간행자가 素庵인 최대 이유는 寶永 7년(1710) 간행한 『辨疑書目錄』에 있다. 저자인 中村富平은 素庵과 光悅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시 간행 사업은 素庵과 光悅가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嵯峨版이라는 명칭은 素庵의 거주지인 嵯峨에서 유래하였다.⁶⁾

2)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3) 曹炯鎭, “日本 嵯峨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2019년도 춘계 한국서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韓國書誌學會, 2019. 4. 26), 70-82.

4)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Tokyo: The Antiquarian Booksellers Association of Japan, 1967), 91-99, 410-476, 851-869.; 川瀬一馬, 『嵯峨本圖考』 (東京: 一誠堂, 1932).; 岡崎久司, “嵯峨本再考,” 『特別展光悅と能-華麗なる謠本の世界』 (熱海: MOA美術館, 1999), 23-29, 55, 59, 131-139.;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 解説篇』 (東京: 汲古書院, 1976), 49-50.; 井上宗雄 等編,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241-243.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5) 이름은 光昌, 자는 玄之·與一·蘇庵, 1571-1632.

6) 이밖에 『和事始』 권4 “印板”조: “亦角倉與市太秦の僧に史記及謠の本を開板せしむ. 嵯峨本と云ふ是也.”라는

“寬永의 三筆”로 추앙되는 인물 중에 本阿彌光悅가 있다.⁷⁾ 光悅는 시대의 명필이면서 당시 미술계의 절반을 통솔하고 지도한 인물이다. 그의 서체는 漢字, 假名를 막론하고 필선에 힘과 속도가 있어서 필묵의 굵기, 농담의 리듬 등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절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光悅는 자신의 미술적 재능을 서적에서도 발휘하여 자신만의 유려한 서체와 필획이 약동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독특한 판본을 간행하였다. 판하본은 자신이 쓰고, 간행은 角倉素庵과 협력하였다. 嵯峨版이다. 素庵과 光悅의 서적 간행상의 역할은 자세하지 않아서 간행 관계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光悅가 판하본을 쓰고 그 미술적 디자인을 서적 인쇄에 접목한 것은 사실이다. 그 문양 역시 光悅의 창안임도 확실하다.

그런데 嵯峨版의 모든 판본을 살펴도 간행자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유일한 공통점은 光悅의 서체와 미술적 디자인이다. 이것도 書型·지질·장정·인쇄 방법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판본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간행 서적의 장황·서체 등을 기준으로 光悅本이라고도 하고, 협력자의 이름인 角倉本 또는 거주지역 명칭을 딴 嵯峨版이라고도 한다.⁸⁾ 즉 江戸시대 이후 光悅本·角倉本·嵯峨版은 동의어로 쓰이는 명칭이다.⁹⁾ 이에 는 목판본도 포함된다.

素庵이 간행한 『史記』의 전래본 중에는 원 표지의 안쪽에서 『舞本』 2종 및 소형 『謠本』 등의 平假名 활자본 파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平假名 혼용 활자본은 慶長 11년 이전에 동일인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下村生藏는 각공이면서 방각본 간행자로서 寶珠院의 의뢰를 받아 慶長 9년(1604)에 활자본 『教誡新學比丘行護律義』 1권 1책을 간행하고, 慶長 10년(1605)에도 활자본 『元亨釋書』 30권 10책을 간행하였다. 또 약간 대형 활자로 『四書』를 간행하였다. 이 활자가 素庵의 『史記』에도 사용되었으므로 이의 간행 년대는 慶長 11년경으로 보인다. 素庵의 『史記』 또한 素庵의 활자 보유 기록이 없는 점에서, 활자를 보유하고 있는 下村生藏에 의하여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史記』의 활자가 慶長 14년(1609) 本屋新七 刊의 『古文眞寶後集』과 『春秋經典集解』에도 사용되었고, 또 『史記』의 光悅 풍의 제첩이 그 번각의 다른 활자본에도 사용된 점에서 素庵이 직간접으로 여러 간행 사업에 관여하였음이 확실하다. 下村時房가 간행한 활자본 『平家物語』는 麻紙의 표지에 운모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光悅 풍의 아류에 속한다. 이 판본을 素庵이 尾州 敬公에 헌상한

기록도 있다.

7) 나머지 2명은 近衛信尹과 松花堂昭乘.

8) 嵯峨는 현 京都 북서쪽의 右京區 지역.

9) 嵯峨本이라는 명칭의 호시는 (일본)南北朝 시대, 중국에서 온 刻工이 禪僧인 春屋妙葩의 보호 아래, 京都市의 嵯峨 지역에서 출판에 종사하며, 禪籍·漢籍·佛典 등을 간행한 판본이다. 또한 室町시대에 洛北의 여러 禪寺, 특히 臨川寺 간행의 판경 『妙法蓮華經』 附訓 각본의 8축(慶安 5년의 목서가 있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江戸 극초기에도 『辨疑書目錄』 등에 “平安朝嵯峨天皇の勅によって…” 또는 “外題の上に嵯峨本の三字がある.” 등의 기록이 있다. 즉 지명을 따서 嵯峨本이라 하였다. 따라서 室町시대까지와 慶長 元和 시기의 호칭은 개념이 다르다.

사실이 있다. 이로 미루어, 이 판본의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素庵이 양 下村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素庵의 서적 간행 활동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素庵은 慶長 10년 전후부터 『史記』 등 여러 판본의 간행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慶長년간에 급격히 발달한 방각본의 유행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素庵의 간행 관련자에는 光悅도 포함된다. 光悅는 자신의 특기인 행초체 서체와 함께 장황의 디자인 등을 통하여 平假名 혼용의 嵯峨版 간행에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한문 서적의 활자판 간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장황에만 관여하였다. 慶長 11년 이전 素庵판 『史記』·『本朝古今銘盡』·『口傳書』(慶長 12년(1607) 11월 이전 간), 下村時房판 『平家物語』·中院판 『平家物語』·慶長 14년 이전 간행의 『寶物集』 등의 여러 판본이 光悅 디자인 운모 문양의 원 표지를 보존하고 있다. 嵯峨版보다 일찍 간행되어 서체나 판식이 전혀 다른 활자본 『徒然草』(10행 17~18자)에는 다색 책지에 운모 문양이 사용되었고, 慶長 11년 이전 간행의 활자본 『伏見常盤』(袋綴裝)에는 胡粉(조개 껍질 분말)을 칠한 다색 책지가 사용되었다. 이밖에 素庵이 간행한 서적의 제침도 光悅 서체를 띠고 있다. 光悅 디자인의 운모 문양 표지를 쓰고 있는 기타의 판본에는 伏見版 慶長 11년간 『七書』·慶長 12년간 『基經』·車屋本二番綴 『謠本』·『謠抄』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光悅가 嵯峨版을 본격적으로 간행하기 이전에 素庵을 비롯한 여러 간행자의 서적 간행 사업에 관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당대의 豪商이면서 藤原惺窩에게 사사하여 漢學을 좋아했던 素庵이 풍부한 재력으로 관여한 여러 간행 사업과 교차하면서, 光悅가 적극적으로 嵯峨版을 간행한 이후에는 양자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光悅가 素庵의 간행 사업에 관여한 일이 동기가 되어, 근세 초기 일본 인쇄문화사상에 嵯峨版이라는 독보적인 족적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시 고전문학의 권위자인 中院通勝도 嵯峨版 간행에 관여하였다.¹⁰⁾ 嵯峨版의 간행이 일본서 유행의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通勝도 일부 역할을 하였다.

2.1.2 嵯峨版의 範疇

嵯峨版은 그 후 光悅 제자의 계승과 타인의 모방 등으로 유사한 판본이 적지 않게 생산되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의견차가 있지만, 여러 판본을 분석하여 설정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光悅가 판하본을 쓰고, ② 미술적 장황을 추가한 光悅본, ③ 서체와 장황 등 光悅의 영향을 풍부하게 구비한 판본을 총칭하여 光悅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本阿彌家の 松田久元이 家職用本으로 알려진 『本朝古今銘盡』 및 『口傳書』 등에 識語를 써서 기증한 판본은 원 표지에 光悅가 디자인

10) 曹炯鎮, “日本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7(2019. 3), 54.

한 운모 문양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光悅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⑤ 여기에 素庵이 협력하여 간행한 판본을 더하면 嵯峨版이다. 즉 협의의 嵯峨版은 光悅본, 광의의 嵯峨版은 光悅본과 角倉본을 포함한 판본을 일컫는다. 光悅본이 칩판을 능가하는 풍격과 기품을 겸비한 수준 높은 것은 물론이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嵯峨版은 19종이다. 이를 책지·書型·인쇄 방법·장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1) 『觀世流謠本』(100番), (2) 『伊勢物語』, (3) 『新古今和歌集抄月詠歌卷』, (4) 『史記』를 대표로 하는 4종으로 대별된다.

(1) 『觀世流謠本』은 양질의 안피지를 2~4매 접합한 본문 책지에 호분을 칠하고, 1책 전체가 단색인 것과 다색 책지에 운모 문양을 인쇄한 특장본도 존재한다. 36종¹¹⁾에 이르는 회화적인 운모 문양을 각각 인쇄하여 양면 인쇄한 列帖裝(綴葉裝)이다. 호분과 운모 문양은 平安朝의 西本願寺 『三十六人集』·元永本 『古今和歌集』 등의 섬세한 회화 운모를 모방한 것이다. 미술적 디자인은 嵯峨版의 으뜸이다.

(2) 『伊勢物語』는 저지에 얇게 호분을 칠한 朱·淡葱·황벽·淡綠의 다색 책지를 혼용한 袋綴裝(線裝)으로 고졸한 삼도가 있다. 일본 출판문화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繪畫本이다. 삽화는 목판, 나머지는 고향자판이다.

(3) 『新古今和歌集抄月詠歌卷』은 두터운 저지에 듬뿍 호분으로 화장을 하고 梅·蔦·鹿·舟橋 등의 운모 문양을 인쇄하였다. 光悅본은 그 서체의 정교함에 특색이 있기는 하지만, 활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運筆의 묘와 配字 기타 디자인적인 면도 있으므로 그 본질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新古今和歌集抄月影歌卷』과 『三十六歌仙』 등은 대형 권자본이고, 『二十四孝』는 列帖裝이다. 이처럼 서예의 본질을 살리기 위하여 목판을 사용한 점과 한문 서적의 장황만큼은 관여한 점에서, 光悅는 그 서체의 우수성과 함께, 다색 책지, 운모 문양 등에 더 심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史記』는 호분·채색·운모 문양 등을 접목하지 않은 얇은 책지를 사용하였다. 단면 인쇄한 線裝이다. 다만 표지만큼은 운모 문양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觀世流謠本』에 사용한 책지의 제작 방법은 제1종본, 제2종본, 제3종본으로 내려갈수록 책지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데, 제1종본은 얇은 안피지를 4매, 제2종본은 3매, 제3종본은 2매씩 접합하였다.

11) 田中親美의 조사에 의하면, 紅葉·水玉·松波·藤巴·水藤巴·竹(3종)·桐(2종)·菊·梅(3종)·藤(2종)·櫻·楨·蔦(2종)·紫陽花·笹·萍·露草·菱文·丸獅紋·松山月·芍藥·山茨·躑躅·波兔·鶴·飛鶴·蝶·蜻蛉·鹿 등이다.

이들 책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표면에 미세한 여러 줄의 주름이 보이는데, 책지를 접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혹자는 嵯峨版의 양면 인쇄의 경우, 책지의 접합과 인쇄의 선후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1장의 책지에 호분을 칠하고 운모 문양을 올린 후, 인쇄한 본문을 접합하여야 양면 인쇄에 따른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면을 인쇄할 때, 전면이 강하게 밟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2.10 (4) 兩面 印刷와 장정 형식” 참조). 목판본 『新古今和歌集抄月詠歌卷』도 동일한 제작 방법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운모 문양을 올린 후 본문을 인쇄한 점은 전자현미경 분석으로도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2.1.3 嵯峨版의 刊行 時期

嵯峨版 중에는 문헌 기록으로 그 간행 년대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로 慶長 11년의 『史記』가 있다. 발문 간어가 있는 판본은 2종, 간행 년대를 짐작할 수 있는 목서 識語가 있는 현존본은 5종 있어서 그 간행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伊勢物語』는 그 간어에 의하면 慶長 13년(1608), 14년, 15년(1610)에 각각 간행되었다. 『伊勢物語聞書(肖聞抄)』는 中院通勝의 간어에 의하면, 慶長 14년에 2회 간행되었다. 『觀世流謠本』에는 慶長 15년의 木箱 목서, 『口傳書』와 『本朝古今銘盡』은 慶長 12년의 목서, 『方丈記』는 慶長 15년 이전 간행을 확인할 수 있는 목서, 『源氏小鏡』은 상권 말에 “慶長十五年十二月日書之”의 목서가 있는 판본이 있다. 기타 12종은 간기가 없지만, 서지학적 관점에서 이들에 앞선다는 확증도 없다. 따라서 慶長 11년의 『史記』를 嵯峨版의 효시로, 慶長 13년의 간기가 있는 中院通勝의 교정으로 간행된 『伊勢物語』를 光悅본의 효시로 간주한다.

嵯峨版은 中院通勝가 죽은 慶長 15년경까지 가장 왕성하게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 후에도 元和년간(1615-1623) 초기까지 이어져서 嵯峨版 전체의 간행 연대는 慶長 11년경 이후 10여 년 정도로 짐작한다.

2.1.4 嵯峨版의 刊行 手段

지금까지 嵯峨版으로 판단되는 판본을 종합하면 19종 서적의 41판종이다. 이들의 간행 수단은 목활자가 15종 36판종이고, 목판은 4종 5판종이다. 즉 嵯峨版 간행의 주요 수단은 목활자였고, 목판은 활자로 표현할 수 없는 連綿체 서풍이나 삽화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2.1.5 嵯峨版의 意義

嵯峨版이 다른 판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가 갖는 의의 또한 크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5.1 平假名 혼용 고전문학서의 대중화로 근세문학 발달의 단초 제공

嵯峨版 이전에도 平假名를 혼용한 활자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嵯峨版의 출현은 ① 불서와 일부 한적의 전문 분야에 국한되던 중세까지의 출판계를 변혁시켜서, ② 平假名 혼용의 고전문학서·和歌·謠曲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서 간행의 비약적인 융성을 이끌고, ③ 고전 문학을 일부에 국한된 고전 계승자로부터 대중들에게 개방함으로써, ④ 坊刻本이라는 새로운 저작물의 간행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근세 초기 인쇄문화사상에서 平假名 혼용 활자본이 왕성하게 성장하였고, 고전문학서가 활발히 간행되었다. 이로써 근세 문학 발달의 주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2.1.5.2 유려한 서체와 화려한 장황

嵯峨版의 일본 인쇄문화상 가장 중요한 의의는 유려한 光悅 서체와 화려한 미술적인 장황이다. 嵯峨版의 장황은 光悅가 平安朝의 西本願寺本「三十六人集」·元永本「古今和歌集」등의 섬세한 운모 장황 등에 접목한 미술적 디자인을 서적 인쇄에 시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는 독특한 장식이다. 이를 종래의 지배적인 가치 “亂”과 “豪”에 대하여, 미적 감각의 “靜”과 “雅”로 설명하기도 한다.

嵯峨版의 장황은 미술적 가공의 차이에 의하여 다음의 5종류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1) 2~4점을 붙인 두툼한 책지에 호분을 점액질 용매인 아교액에 개어서 칠하는데, 紅綠黃靑灰 등 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연하게 각각 물들이기도 한다. 그 표면에 운모 조각이나 가루로 문양을 인쇄한다. 미술적 가공이 가장 화려한 장황이다. 인쇄할 때에는 1책의 책지를 단색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색을 혼용하기도 한다. 1책 중에 여러 색상을 혼용한 경우는 「久世舞」(30곡본) 1本·「百人一首」 제1종 1本·「二十四孝」 1本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운모 문양 책지를 사용한 경우는 여러 색상을 혼용한 것 외에도 「觀世流謠本」 제1, 2종본(녹색 또는 홍색 사용하되 혼용하지 않음)·「方丈記」 제1종본(두터운 안피지 접합 책지 사용)·「新古今和歌集抄月詠歌卷」 등이 있다.

이상의 경우도 표지는 다색지, 운모 문양의 것을 사용하였다. 양면 인쇄하여 열첩장·권자본 등으로 제본하였다. 판식에서도 光悅의 서체를 극명히 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嵯峨版 중에서 光悅본을 구분하기도 한다.

(2) 두터운 책지에 호분을 칠하고, 다색지를 사용한 것(「久世舞」(36곡본))과 사용하지 않은 것(「觀世流謠本」 제3, 4종본·「久世舞」(30곡본) 口本 등)이 있다. 운모 문양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열첩장과 표지는 (1)과 같다.

(3) 얇은 책지에 호분을 칠하고, 운모 문양을 인쇄한 경우(『徒然草』 제1, 2종본 등)다. 袋綴로 하였고, 표지는 운모 문양의 비교적 얇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였다.

(4) 얇은 책지에 호분만 칠한 경우다. 다색지를 사용한 경우(『伊勢物語』·『伊勢物語聞書(肖聞抄)』)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觀世流謠本』 제5종본·『撰集抄』)가 있다. 표지는 (3)과 같다.

(5) 책지에는 아무런 디자인을 가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표지만은 운모 문양의 것을 사용하였다. 현존본에 운모 문양 없는 것은 개장한 경우일 것이다.

<표 1> 嵯峨版 장황의 종류

	책지 두께	호분	책지 색상	운모 문양	제본	표지	판본	
1	2~4합지	사용	다색지	혼용	사용	양면 인쇄, 열침장	다색지, 운모 문양	久世舞(30곡본) 4본·百人一首 제1종 4본
						목판 양면 인쇄, 열침장		二十四孝 4본
						양면 인쇄, 열침장		觀世流謠本 제1, 2종본·方丈記 제1종본
						목판 양면 인쇄, 권자장		新古今和歌集抄月詠歌卷
2	2~4합지	사용	다색지	사용	양면 인쇄, 열침장	운모 문양	久世舞(36곡본)	
			백색지	사용 안함			다색지, 운모 문양	觀世流謠本 제3, 4종본·久世舞(30곡본) 6본
3	1겹지	사용	백색지	사용	대철장	운모 문양	徒然草 제1, 2종본	
4	1겹지	사용	다색지	사용 안함	대철장	운모 문양	伊勢物語·伊勢物語聞書(肖聞抄)	
			백색지				觀世流謠本 제5종본·撰集抄	
5	1겹지	사용 안함	백색지	사용 안함	대철장	운모 문양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史記·源氏小鏡	

서적 인쇄에 운모 문양 등의 미술적 디자인을 접목한 것은 光悅의 독창인가? 嵯峨版보다 일찍 간행된 『徒然草』와 『伏見常盤』의 특징은 이미 언급하였다. 장황 역시 慶長 10년 전후에 다색지, 운모 문양 등의 장황을 서적 인쇄에 시도한 적이 있었다. 또 당시에 이러한 책지의 필사본도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光悅가 기존의 유사한 판본에 미술적 독창성을 더하여 새로운 차원의 嵯峨版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嵯峨版 한적이라고 칭하는 慶長 11년 이전 고허자본 『史記』는 光悅 서체와 비슷한 제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光悅본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慶長년간의 한적은 光悅본의 범주에 해당하는 판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嵯峨版에는 해당되며, 이를 嵯峨版으로 저록하고 있는 소장 기관도 있다. 이러한 판본은 5종이다(<표 2> 嵯峨版 古活字本 目錄의 2·5·6·10·11번).

2.1.5.3 삽화본의 발달 촉진

일본 중세까지의 삽화본은 佛典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국한하여, 그 발달이 가장 느렸다. 그러다가 嵯峨版에 이르러 삽화의 기능과 목적을 심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49장의 삽화가 있는 『伊勢物語』나 『二十四孝』 등에서 보듯이, 삽화 양식이 室町 후기부터 출발한 奈良 삽화본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明刊 소설류 삽화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嵯峨版은 江戸시대를 통하여 삽화본의 양식을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明曆(1655-1657), 萬治(1658-1660)년간부터 등장하는 菱川師宣 등 대표적인 회화본 작가의 탄생도 촉진하였다. 이로써 삽화를 고전문학사에서 부활시켜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인쇄문화사상에서 삽화본에 한 획을 그은 점은 확실하다.

2.1.5.4 귀중본에 대한 학술계의 인식 형성

우수한 저본에 근거하여 서적을 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嵯峨版의 화려한 디자인과 우수한 장황은 대중의 서적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서 귀중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였다. 私家版이면서 호화본이므로 구매층이 한정되었겠지만, 귀중본을 저본으로 한 우수한 판본을 생산 보급하게 하는 원조가 되었다. 그 결과 현존 嵯峨版은 물론 많은 귀중본이 지금까지도 학술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출판계와 학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 嵯峨版의 數量과 版式

2.2.1 嵯峨版의 數量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해제,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嵯峨版 고활자본은 15종 서적의 36판중¹²⁾ 44본¹³⁾이다.¹⁴⁾ 판본의 구분은 간행 년도·이식자판·활자와 삽화의 양식·책지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¹⁵⁾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서적에 따라 1회 인쇄에 그친 경우도 있고, 많게는 10회까지 반복한 경우도 있다.

12) 인판의 차이에 의한 구분. 판본에 해당한다.

13) 장황 등의 차이에 의한 구분.

14) 이밖에 “傳嵯峨本”으로 저록한 『源氏物語』가 있다. 東洋文庫 三Ba14·大東急紀念文庫 105-6·7-1·天理圖書館 913.36-11·弘文莊古活字版目錄 p. 101 등.

15) 일본 고활자판 중에 “丹綠本”이 있다. 『伏見ときは(常盤)』·『四生の歌合』·『四十二の物あらそひ』·『義經記』·『淨瑠璃物語』·『曾我物語』·『七人比丘尼』·『おひさかし』·『からいとさうし』·『はちかつぎ』·『やよひのさうし』 등이다. 嵯峨版의 영향으로 간행된 아류로 보인다. 여기에는 삽화를 인쇄하기 위하여 그림 활자(繪活字)를 사용한 점이 특징 중 하나이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사한 판본은 14종 서적 24판중 24본이며,¹⁶⁾ 서영을 참고한 것은 12판중 (10판중은 실사 판본과 중복)이다(<표 2> 참조). 목판본 4종¹⁷⁾은 제외하였다.

<표 2> 嵯峨版 古活字本 目錄

서명	권-책수	판본 사항 ¹⁸⁾	판본 특징	비고	
1 觀世流謠本 ¹⁹⁾	100-100 ²⁰⁾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1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7행 13자	(1)WA7-232, ²¹⁾ (2)五C1, ²²⁾ (6)110X-10, ²³⁾ (8)911.6- 1145, ²⁴⁾ (8)911.6- 111, ²⁵⁾ (8)911.6- 15, ²⁶⁾ (8)911.6- 17 ²⁷⁾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2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7행 13자 不等	(2)五C2, (8)911.6- 125, ²⁸⁾ (8)911.6- 1147, ²⁹⁾ (9)p.137 ³⁰⁾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3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1)WA7-35, ³¹⁾ (8)911.6- 1129, ³²⁾ (8)911.6- 1149, ³³⁾ (8)911.6- 1151, ³⁴⁾ (8)911.6- 13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4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제3종본 이식자판	(8)911.6- 125는 2종본으로 분류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5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제4종본과 다른 판식		이하는 소장기관도 판종을 저록하지 않고 있고, 필자도 감별할 수 없어서, 이곳에 일괄 수록한다. (2)三Ba10, ³⁵⁾ (4)556-133, ³⁶⁾ (8)911.6- 1163, ³⁷⁾ (8)911.6- 1155, ³⁸⁾ (9)p.135, ³⁹⁾ (9)p.141, ⁴⁰⁾ (9)p.143, (9)p.145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6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대철장, 표지는 다색지, 운모 문양	제5종본과 다른 판식, 이식자판 있음, 백색지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7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제6종본과 다른 판식, 백색지		
		慶長후반기-元和6년간제 8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7행 12~13자, 제6종본 의 이식자판, 3색지		
		慶長15년간제9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木箱목서)	7행 약 13자, 제7종과 다른 판식, 이식자판 있음, 다색지, 운모 문양		
		제10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백색지, 표지는 5색지, 운모 문양		

16) 실사한 14종 서적의 35판중 43본 중에서 異種 합성본, 판종을 감별하지 못하거나 중복된 본의 경우 등은 생략하였다.

17) 嵯峨版 木板本 目錄

서명	권-책수	판본 사항	판본 특징
1 古今和歌集		嵯峨版木板本	9행 25~29자, 권자장
2 三十六歌仙	1-1	慶長후반간제1종 1분嵯峨版木板本	호분, 다색지
		慶長후반간제1종 2분嵯峨版木板本	호분, 대철장
		慶長후반간제1종 3분嵯峨版木板本	백색지, 후쇄본
		慶長후반간제2종본嵯峨版木板本	백색지, 대형 권자장
3 新古今和歌集抄 月詠歌卷	1-1	嵯峨版木板本	2~4합지, 호분, 다색지, 운모 문양, 양면 인쇄, 대형 권자장, 표지는 다색지, 운모 문양
4 二十四孝	1-1	慶長후반간 1분嵯峨版木板本	9행, 목판삽화, 2~4합지, 호분, 다색지 혼용, 운모 문양, 양면 인쇄, 열점장, 표지는 다색지, 운모 문양
		慶長후반간 2분嵯峨版木板本	9행, 목판삽화, 호분, 다색지, 대철장

	서명	권-책수	판본 사항 ¹⁸⁾	판본 특징	비고
2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	10-2	[慶長年間]第3種本嵯峨本木活字印本	8행 18자	(2)三Ae16 ⁴¹⁾ , (2)三Bc6, (7)文庫7-975
3	久世舞 (30곡본)	1-1	[慶長年間]イ本嵯峨版木活字印本	7행 15자	(2)三Ba12 ⁴²⁾ , (5)33-9-132
4	久世舞 (36곡본)		[慶長年間]ロ本嵯峨版木活字印本		
5	口傳書		慶長12년이전간嵯峨版木活字印本(목서)	8행 18자 不等	
6	能花傳書	2-2	[慶長年間]嵯峨版木活字印本	12행 20자, 대철장	(2)三Bc3 ⁴³⁾

- 18) 일본의 판본사항 저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印本’으로 저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19) 서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소장 기관에 따라 『謠曲』·『謠本』·『小謠集』 등으로 저록하고 있다. 謠曲은 能樂의 악장에 맞춰 부르는 속요의 곡조. 謠本은 초심자가 노래와 연극을 연습하기 위한 교과서.
- 20) 판본에 따라 곡목에 출입이 있어서 모두 합하면 126곡.
- 21) “卒都婆小町”·“三井寺”·“あこき” 3책 낙질.
- 22) 99책. “軒端梅” 1책 결락.
- 23) “大會”는 제1종, “俊寛”은 제2종으로 합성한 2책 낙질.
- 24) 28책 낙질.
- 25) “杜若” 1책 낙질.
- 26) “白樂天” 1책 낙질.
- 27) “朝長” 1책 낙질.
- 28) 87책은 제2종본, 13책은 제4종본으로 합성한 亂版.
- 29) 5책 낙질.
- 30) 97책 낙질.
- 31) “班女”·“安古木”·“むめか元”·“仮ミとめ” 4책 낙질.
- 32) 天理圖書館 목록에는 “제2종”으로 저록하고 있으나, 실물 대조 결과 제3종임.
- 33) 110책.
- 34) 10책 낙질. “通小町”·“氷室”은 同種異版으로 보충.
- 35) “邯鄲”·“自然居士” 1책, “藤戸”·“蟻通” 1책 낙질.
- 36) 100번 20책.
- 37) “[寛永年間]二番綴本”으로 저록, 22번 11책 낙질. 虫損, 열람 불가.
- 38) “關寺小町” 등 2책 낙질.
- 39) 20번 낙질.
- 40) 5번 낙질.
- 41) 현재의 판본 상태는 활자본을 작품별로 내려내어, 해당 작품의 주해를 그 앞이나 뒤에 기록하면서 새로 붙였다. 그 결과 附集注 4책이다. 따라서 연구 자료로는 중요하나, 판본의 가치는 떨어진다.
- 42) 소장 기관도 이본과 로본을 구별하지 않고, 필자도 감별하지 못하였다.
- 43) 권1 제16엽은 결락. 제2책 제89엽 이하 26엽은 필사로 보충.

서명	권-책수	판본 사항 ¹⁸⁾	판본 특징	비고
7 徒然草	3-3	제1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10행 17자	(1)WA7-219(?), (2)三Ba19, (2)三Ba22, ⁴⁴⁾ (5)33-9-135, (8)914.5-15, (8)914.5-15, (9)p.119, 121
		제2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10행 17자, 제1종본 이식자판	(3)特27-18, ⁴⁵⁾ (8)914.5-111, ⁴⁶⁾ (思文目)p.124-125
		제3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10행 17자, 백색지, 대철장	(2)三Ba18, (9)p.123
		제4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10행 17자, 제2종본 이식자판, 백색지, 대철장	(3)特60-22, (9)p.121
		제5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9행 17자, 후쇄본, 백색지	(2)三Ba20
		제6종본嵯峨版木活字印本	9행, 백색지	
8 方丈記	1-1	慶長15年제1종嵯峨版木活字印本(목서)	9행 15자, 초판	(2)三Ba26, (2)三Ba27, (8)914.41-17, (9)p.102
		慶長15年제2종嵯峨版木活字印本(목서)	9행 15자, 재판, 백색지, 대철장	(2)三Ba28 ⁴⁷⁾
9 百人一首	1-1	[慶長年間]제1종1본嵯峨版木活字印本	7행 14자 不等	(2)三Bb7
		[慶長年間]제1종口本嵯峨版木活字印本	9행 16자, 호본, 백색지, 대철장	(2)三Bb8, (5) 41-16-3021
10 本朝古今銘盡	1-1	慶長12년이전간제1종嵯峨版木活字印本(목서)	소형활자, 8행 19자, 백색지, 대철장	(2)三Bc4, (2)三Bc5, (8)399.2-11
		제2종嵯峨版木活字印本		
11 史記 ⁴⁸⁾	130-50	慶長11년이전간第1種嵯峨版木活字印本	嵯峨版의 호시, 8행 17자, 有界	(2)三Ah6, ⁴⁹⁾ (2)三Ah13, ⁵⁰⁾ (2)三Bc1, ⁵¹⁾ (3)別26-1, (5)35-10-556, ⁵²⁾ (7)特78-1709, ⁵³⁾ (8)222-111, ⁵⁴⁾ (8)011-111-57, ⁵⁵⁾ (8)222-171, ⁵⁶⁾ (9)p.35, (10)p.256, (11)1317, ⁵⁷⁾ (11)1318, ⁵⁸⁾ (12)故觀61

44) 권하 낙질. 東洋文庫는 제2종본으로 분류하고 있다(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II』 (東京: 東洋文庫, 1998), 224).

45) 채색 안료 탈락으로 인하여 열람 불가.

46) 상권 1책 낙질.

47) “元和年間”으로 저록.

48) 慶長元和年間木活字제2종본(內閣文庫 別25-1·大東急紀念文庫 22-40-57·慶應義塾圖書館 41-1(30冊)·慶應義塾圖書館 179-74(1冊)·慶應義塾大學圖書館付屬研究所斯道文庫 092-185-50·天理圖書館 222-117), 慶長元和年間木活字제3종본(國會圖書館 WA7-98(卷1-5 결락)·東洋文庫 三Ah5·東京大學總合圖書館 Aoo-5898·弘文莊善本目錄 p. 257)은 嵯峨版이 아니다.

49) 130권 49책.

50) 서명을 「史記正義」로, 간행 년대를 [慶長元和中]으로 저록.

51) “傳嵯峨本”으로 저록. 감정 결과 嵯峨本제1종본과 同版.

52) 제1책은 제2종본으로 보충.

53) 권117, 1책 낙질.

54) “傳嵯峨本”으로 저록.

	서명	권·책수	판본 사항 ¹⁸⁾	판본 특징		비고	
12	源氏小鏡	2-2	慶長十五年嵯峨版木活字印本(목서)	9행 18자		(5)33-9-134, (8)913.36- 417	
13	伊勢物語 ⁵⁹⁾	2-2	慶長13년간제1종 1본嵯峨版木活字印本(간기)	9행 16~18자, 회화본	光悅본의 효시, 9행 18자	(3)特60-17, (8)913.32- 455	
			慶長13년간제1종 口본嵯峨版木活字印本			(2)三Ba3	
			慶長13년再刊제2종 1본嵯峨版木活字印本 ⁶⁰⁾ (간기)		삽화는 1종본을 사용	9행 18자	(2)三Ba1
			慶長13년再刊제2종 口본嵯峨版木活字印本				(2)三Ba4
			慶長13년再刊제2종 八本嵯峨版木活字印本		9행 18자 不等, 백색지		(9)p.61
			慶長14년간제3종 本嵯峨版木活字印本(간기)				(1)WA7-2761
			慶長15년간제4종 1본嵯峨版木活字印本(간기)				(1)WA7-28, (8)913.32- 411, ⁶²⁾
			慶長15년간제4종 口본嵯峨版木活字印本(간기)				(9)p.71
		慶長15년간제4종 八本嵯峨版木活字印本					
		1-1	慶長년간간제5종 本嵯峨版木活字印本	10행 17자, 무삽화			
14	伊勢物語聞書(省聞抄)	3-3	慶長14년간제1종 本嵯峨版木活字印本(간기)	대철장	通勝 기명 날인본, 9행 17자	(1)WA7-29, (1)WA7-30, (2)三Ba9, (8)913.32- 4121	
			慶長14년간제2종 1본嵯峨版木活字印本		通勝 기명 날인본, 9행 18자	(2)三Ba8, ⁶³⁾ (4)502-408, (5)33-9-133, ⁶⁴⁾ (9)p. 99	
			慶長14년간제2종 口본嵯峨版木活字印本(간기)		通勝 무기명 무날인본, 9행 18자		
15	撰集抄	3-3	慶長 후반기간嵯峨版木活字印本	9행 18자		(2)三Ba17, (8)913.4- 447, (9) p. 107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 = (日)國立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宮內廳書陵部, (5) = 大東急紀念文庫, (6) = 慶應義塾大學圖書館, (7) = 早稻田大學圖書館, (8) = 天理圖書館, (9) = 『弘文莊古活字版目錄』, (10) = 『弘文莊善本目錄』, (11) = (中華民國)國家圖書館, (12)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思文目) = 『思文閣古書·資料目錄: 善本特集第3輯』,⁶⁵⁾

55) 권16·17, 1책 낱질, “傳嵯峨本”으로 저록.

56) 118권 40책 낱질, “傳嵯峨本”으로 저록.

57) “慶長元和년간”으로 저록.

58) “慶長元和년간”으로 저록.

59) 『伊勢物語』의 판종과 그 구분에 대하여는 이설이 많다(鈴木廣光, “嵯峨本『伊勢物語』の活字と組版,” 張秀民 등저, 『活字印刷の文化史』(東京: 勉誠出版, 2009), 121-124).

60) 慶長13년再刊제2종 1본의 복각본 1본(삽화, 다색지)과 口본(삽화, 백색지)이 있다.

61) 소장 기관도 1본과 口본을 구별하지 않고, 필자도 감별하지 못하였다.

62) 권상은 목판본으로 보충.

63) 소장 기관도 1본과 口본을 구별하지 않고, 필자도 감별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해를 달리하여 간행한 판종도 있어서, 간행 연도별 총 수량은 서적의 종수보다 많다. 慶長 11년 이전에 1종, 12년에 2종, 13년에 1종, 14년에 1종, 15년에 2종, 慶長년간 또는 慶長 元和년간에 10종이다.

2.2.2 嵯峨版의 版式 상 特徵

실사자 24판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일 판종을 중복 조사하였을 경우는 완질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영이나 문헌 자료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서술하지 않고 제각각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嵯峨版 이해에 필요한 요소만 참고하였다.

2.2.2.1 表紙 題簽 書名

서명을 제첩에 인쇄한 경우는 5종, 묵서한 경우는 6종이다. 묵서한 경우, 일부는 제첩이 탈락하였거나, 표지를 개장하였다. 제첩 없이 표지에 묵서한 경우가 6종인데, 서명 아래에 편명도 소자로 묵서하기도 하고(『史記』), 마모되어 흔적만 남거나(『方丈記』(2)三Ba26) 덧붙인 개장 표지에 제첩 묵서한 경우(『方丈記』(2)三Ba28)도 있다. 서명 없이 편명을 제첩에 인쇄한 경우는 3종이다. 표지를 개장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행초체를 쓰고 있다. 서명 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도 4종 있는데, 그 중 1종(『本朝古今銘盡』)은 제첩 탈락 흔적이 있다.

2.2.2.2 匡廓 형식

광곽이 없는 경우가 22종으로 대부분이다.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과 『史記』는 사주 쌍면이다.

2.2.2.3 界線 유무

계선이 없는 경우가 22종으로 대부분이다.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과 『史記』는 있다.

2.2.2.4 行數

반엽에 7행이 4종, 8행이 4종, 9행이 11종, 10행이 4종, 12행이 1종 있다. 9행이 가장 많다. 『本朝古

64) 권중은 결락.

65) 『弘文莊古活字版目錄』·『弘文莊善本目錄』·『思文閣古書·資料目錄: 善本特集第3輯』은 판매목록이므로 해당 판본의 현재 소재지는 바뀌었을 수 있다.

『今銘盡』은 8행인데, 제1행은 刀銘과 제조 시기, 제2~3행은 도공명과 도형을 목판으로 圖示하고, 제4~8행의 5행은 해설문인데 간혹 행간을 줄여서 6행을 배열하기도 하였다.

2.2.2.5 字數

13~20자로 다양하다. 13자가 3종, 15자가 4종, 16자가 1종, 17자가 7종, 18자가 7종, 19자가 1종, 20자가 1종 있다. 17, 18자가 각각 7종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에는 1~2자의 출입이 있는 경우가 있다. 13자의 『觀世流謠本』(8)911.6-149, 18자의 『伊勢物語』(1)WA7-27 외에도 흘려 쓴 연면체 판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간혹 보인다.

2.2.2.6 小註 형식

小註가 없는 경우가 21종으로 대부분이다. 3종(『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史記』·『伊勢物語聞書(尙聞抄)』(1) WA7-29)만이 쌍행으로 소자 활자를 사용하였다.

2.2.2.7 版口와 版心題 형식

판심이 없는 22종은 당연히 판구와 판심제가 없다.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史記』만이 판심이 있는데, 판구·어미·판심 계선이 일체적인 판심 막대를 사용하였다. 판구는 대흑구, 판심제는 극소자로 “古文后”와 “史記”이다.

2.2.2.8 魚尾 형식

판심이 없는 22종은 당연히 어미가 없다.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史記』만이 어미가 있는데, 모두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

2.2.2.9 卷次와 張次

판심이 있는 2종(『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史記』)만이 “一 一”과 “紀一 七”처럼 되어 있다.

판심이 없는 22종은 권차와 장차가 판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철장의 경우, 서너 속을 자세히 보면, 원래 각 엽의 상엽 우측이나 하엽 좌측의 여백에 인쇄되어 있었는데, 제본할 때 재단되지 않은 편린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能花傳書』는 하엽 좌측의 8~13자 또는 11~16자 위치에

“三六” 또는 “三 十七” 등으로 인쇄되어 그 편린이 남아있다. 권차는 제본 상태가 제1책은 권1, 3, 7, 8, 제2책은 권5, 4, 2, 6 순으로 되어 있다. 『徒然草』 2종((2)三Ba18 · (3)特60-22)은 각각 상업 우측의 17자~지각, 절반 아래 위치에 “五十九”나 “下四九” 등으로 인쇄되어 있거나, 그 편린이 보인다. 『方丈記』(2)三Ba28 · 『百人一首』(2)三Bb8 · 『撰集抄』는 각각 하엽 좌측의 10~11자, 10~13자, 6~8자 위치에 “十二”, “十四”, “上十三” 등으로 인쇄되어 있다. 『本朝古今銘盡』은 상업 우측의 10~12자 위치에 “二十四” 등으로 인쇄되어 있다. 『源氏小鏡』은 하엽 좌측의 6~16자 사이의 상·중·하부에 약 3자 길이를 차지하여 소자로 “上四十三” 등으로 인쇄되어 있다. 다만 卷上 제86엽만은 상업 우측 여백에 있다. 『伊勢物語』 3종((3)特60-17 · (2)三Ba1 · (1)WA7-27)은 상업 우측의 각각 절반 아래, 8자, 6~11자 위치의 3곳에 “下 一”, “四”, “下三十九” 등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를 보면 상권에는 권차를 생략하고 장차만, 하권에는 권차와 장차를 모두 조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三Ba3 · (2)三Ba4 · (1)WA7-28 역시 비슷하다. 『伊勢物語聞書(尙聞抄)』 2종은 하엽 좌측의 각각 11~14자, 13~15자 위치에 “一”~“百…”, “百卅四”, “四十五” 등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에서 3책을 권책수 구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번호로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면 인쇄한 열침장의 경우는 권차와 장차가 없다.

2.2.2.10 기타 特徵

(1) 平假名 活字와 連刻活字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實後集』 · 『史記』를 제외한 22종이 모두 平假名 활자와 2~4자의 연각활자를 사용하였다. 平假名와 한자를 연각하기도 하였다. 이는 光悅의 독특한 서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활자의 제작 방법에 관하여 百瀬宏는 중국 元代의 王禎의 목활자 제작 방법처럼 목판 전체를 먼저 조각한 후, 1字씩 절단하여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鈴木廣光는 嵯峨版의 특징이 연각활자에 있으므로 미리 규격화된 板下字를 써서 조각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았다.⁶⁶⁾

(2) 傍點과 漢字 聲譜 活字

『謠本』 · 『久世舞』 등에는 저술의 특성이 요구하는 가락을 표현하기 위한 방점과 한자 정보를 표시한 활자를 본문 행간의 우측에 배열하되, 본문보다 1자 위에서부터 배열하였다.

이러한 방점과 정보 활자를 片假名 · 振假名 · 訓點 등처럼 행간이나 본문 활자 양측에 두루 넣는 조판 방식은 기술상 상당히 까다로워서 인쇄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66) 鈴木廣光(2009), 111-113.

(3) 胡粉紙·多色紙·雲母 紋樣紙

수공업 종이는 섬유 간의 공극이 커서 공기 중의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묵집이 번지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극을 충전하는 가공을 하기도 한다.

嵯峨版의 경우는 호분을 칠하였는데, 판본에 따라서는 공극 충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리만큼 많은 양의 호분을 칠하여 책지가 두툼하고 딱딱할 정도여서 탈락하기도 하고, 표면에서 반짝거림이 보이기도 한다. 호분을 도포한 흔적을 보면 책지 위에 붓질한 자국이 남아 있다. 일부 칠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손으로 만지면 호분이 하얗게 묻어난다. 9종 서적이 책지에 호분을 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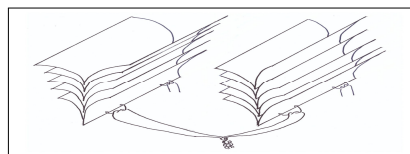
3종(『觀世流謠本』(2)五C2·『伊勢物語』(3)特60-17과 (2)三Ba1)은 5색지를, 『伊勢物語聞書(宵聞抄)』(2)三Ba8은 7색지를 사용하였다.

8종에는 운모로 장식용 문양을 인쇄하였다. 운모인쇄지는 高野版에서도 볼 수 있다.⁶⁷⁾

(4) 兩面 印刷와 장정 형식

기본적으로 수공업 종이는 양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嵯峨版에는 책지 2~4겹을 붙여서 양면 인쇄한 판본이 8판중(『觀世流謠本』 제1~4종본·『久世舞』(30곡본)·『久世舞』(36곡본)·『方丈記』 제1종본·『百人一首』 제1종1본) 있다.⁶⁸⁾ 양면 인쇄까지의 순서는 책지 2~4겹 합착 → 호분 칠 → 운모 문양 → 인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호분 칠 → 운모 문양 → 인쇄 → 2~4겹 합착 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⁶⁹⁾ 인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 책지가 얇을 경우에는 전자의 순으로, 두툼할 경우에는 후자의 순으로 가능하다. 『觀世流謠本』 제3종본과 『久世舞』(36곡본)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면 인쇄의 경우 인쇄된 내용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列帖裝(綴葉裝)으로 장정하였다. 장정 방법은 대체로 서엽의 판심을 접은 3~5장을 포개어 판심 부분의 2곳을 실로 꿰어 1묶음으로 하고, 다시 3~8 묶음을 엮어서 제본하는 방식이다(<그림 1> 참조). 『久世舞(36곡본)』는 5장 × 8묶음으로 1책을 제본하였다. 앞뒤 표지는 따로 붙이고,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 열첩장 개념도

67) 曹炯鎮, “日本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2(2017. 12), 156.

68) 목판본 『二十四孝』도 양면 인쇄본이다.

69) 岡崎久司(1999), 132.

(5) 陰刻 活字와 木板 並用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은 음각 활자를 사용하였다.

6중은 목판을 병용하였다. 이는 刀形 등 삼도는 활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방법이다.

3. 嵯峨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嵯峨版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실사한 판본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기술 분석은 嵯峨版에 많이 사용한 호분과 운모 등으로 인하여 책지에 반영된 자적이 활자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⁷⁰⁾

たのもやを物佛上勢語伊八下 등의 문자를 세심히 비교하면, 그 자양이 다르다. 대부분 판본이 유사하거나 다소 또는 제법 차이나는 등 다양하다.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모두 세련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양의 차이는 필획 굵기, 해서·행서 등 서체를 달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양이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되면서, 세련도는 아주 약간 떨어진다(『能花』·『徒然』(2)三Ba18·『徒然』(3)·『徒然』(2)三Ba20·『方丈』(2)三Ba26·『肖聞抄』(1))·『肖聞抄』(2)).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나기도 하여, 세련도가 제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古文后』⁷¹⁾·『小鏡』).

『觀世流謠本』(2)五C1 “高砂” 제1엽 상엽 3-3·6-13, “自然居士” 제1엽 상엽 1-11·3-3·6-2	『史記』(12)故觀61 권4, 제3엽 하엽 2-14·3-14·5-4·5-5

<사진 1> 字樣의 일치 여부

70) 기술 요소를 예시한 판본은 구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자 임의로 약칭을 사용하였다. 이하 같다.

71) 판심제로 표시.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이 드물게 보인다(『伊勢』(3)).

대부분의 판본이 필획이 교차하는 곳과 필획의 윤곽에서 모두 보인다. 간혹 도각의 흔적이 역력한 결과 다소 딱딱하고 다듬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준다. 심지어 일부 필획이 결실된 경우도 보인다. 『徒然草』(3)特60-22의 제2엽 하엽 2-4의 て, 제3엽 상엽 2-2의 ま, 4-3의 に 등이다. 『撰集抄』는 윤곽에서도 역력하다.

필획 교차 부분에서 간혹 보인다. 흘림체여서 윤곽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다(『久世(36)』·『方丈』(2)三Ba26·『百人』·『史記』). 『史記』는 흘림체가 아니다.

도각의 흔적이 역력한 경우도 있다(『古文后』).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목색이 과하지 않은 엽에서 작은 경우가 보인다. 드물게 약간 큰 것이 보이기도 한다(『伊勢』(2)).

대형 목리가 간혹 보인다. 작은 목리는 진한 목색으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으나, 적합한 목색에서는 쉽게 보인다(『謠本』(2)五C2·『方丈』(2)三Ba26·『百人』·『銘盡』).

크고 작은 목리가 꾸준히 보인다. 용지가 두툼한 까닭에 인출하면 목리가 쉽게 반영되므로 인본 상에서도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謠本』(2)五C1·『謠本』(8)·『久世(30)』·『能花』·『徒然』(2)三Ba19·『徒然』(2)三Ba18·『徒然』(3)·『徒然』(2)三Ba20·『肖聞抄』(1)·『肖聞抄』(2)·『撰集』). 굵은 필획의 문자가 많아서 쉽게 보이기도 한다(『方丈』(2)三Ba28·『伊勢』(3)·『伊勢』(1)).

크고 작은 목리가 역력하여 쉽게 보인다(『古文后』·『久世(36)』·『徒然』(8)·『史記』·『小鏡』).

『觀世流謠本』(1)WA7-232 “あこき” 제1엽 상엽 2-3, (2)五C2 “高砂” 제1엽 상엽 6-4, 『史記』(12)故觀61 권4, 제1엽 상엽 4-2	『觀世流謠本』(2)五C1 “自然居士” 제1엽 상엽 3-1, (1)WA7-232 “三井寺” 제1엽 상엽 3-1, (1)WA7-232 “あこき” 제1엽 상엽 4-1
	

<사진 2> 도각 흔적과 목리 현상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거의 대부분이 유려한 필서체 흘림체 문자의 필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아직은 필서체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古文后』).

3.2.2 文字의 美感

서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붓끝의 흘린 필획을 그대로 표현하여 서체 예술의 미감을 잘 살리고 있다. 주로 행서체와 장초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술적 미감을 위하여 필획의 굵기 서체 등을 동일한 문자라도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모두 균정하다. 문자의 크기, 자양 등은 다양하게 차이 나지만, 의식적으로 의도한 듯 매우 세련되어 있다. 문자 필획의 윤곽이 분명하여 도각 흔적이 역력한 점에서 신조 활자로 보인다(『謠本』(2)五C1 · 『謠本』(2)五C2 · 『謠本』(8) · 『久世』(30) · 『久世』(36) · 『能花』 · 『徒然』(2)三Ba19 · 『徒然』(8) · 『百人』 · 『伊勢』(3) · 『伊勢』(2) · 『伊勢』(1)). 필획의 굵기는 변화가 큰 경우와((2)五C1) 비교적 고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2)五C2). 『百人一首』는 假名는 가는 필획, 한자는 굵은 필획이어서 구별이 쉽다. 또한 간혹 필획이 끊어진 경우가 보인다.

서체 균형을 유지하고, 흘린 필획이 균정한 점은 유사하나, 다소 퇴화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필획이 다소 굵고, 윤곽이 퇴화되었고, 목리는 간혹 역력한 점에서 다소 많이 사용한 활자로 보인다(『徒然』(2)三Ba18 · 『徒然』(3) · 『徒然』(2)三Ba20 · 『方丈』(2)三Ba26 · 『方丈』(2)三Ba28 · 『銘盡』 · 『肖聞抄』(1) · 『肖聞抄』(2) · 『撰集』).

서체 균형은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소자에서 부조화 문자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 필획은 그다지 균정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대체로 필획은 굵고, 윤곽은 퇴화되었고, 목리는 역력하고, 서체나 도각 상태가 완전히 다른 보자 등으로 미루어 많이 사용한 활자로 보인다. 수명이 거의 끝난 것도 있다(『古文后』 · 『史記』 · 『小鏡』). 다만 대자는 아직 유려한 미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필획이 결실된 경우가 보인다(『史記』). 미감을 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小鏡』).

3.3 기타: 例外的인 活字

음악 문자의 목적으로 미루어 방형 활자이다(『古文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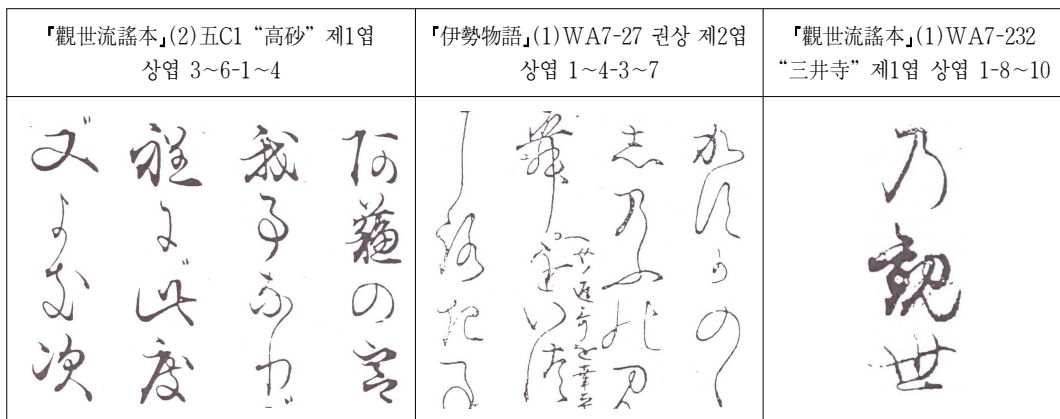
목색이 간혹 금속활자와 유사한 분위기가 있는 점에서 목질이 단단함을 알 수 있다(『史記』 · 『伊勢』(3) · 『伊勢』(2) · 『伊勢』(1)).

필획이 가늘고 윤곽도 뚜렷한데 일부 문자에서는 목리가 쉽게 보여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오래된 활자가 섞여있는 듯하다(『伊勢』(1)).

『伊勢物語』 제1종본의 인출에 사용된 활자의 연 수량 15,726개 중에, 2~4자의 연각 활자가 있다. 특이한 점은 활자 동체의 길이(縱)는 2~4배이지만, 조각한 문자수는 동체의 길이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종류와 수량은 <표 3>과 같다.⁷²⁾

<표 3> 『伊勢物語』 제1종본 인출용 활자의 종류와 수량

길이(縱)	종수(개)	설명
정상	931	假名 낱자 626 · 漢字 낱자 299 · 반복 부호 6
2배	1,030	2자 연각 914 · 3자 연각 65 · 假名 낱자 31 · 漢字 낱자 18 · 반복 부호 2
3배	161	3자 연각 88 · 2자 연각 64 · 4자 연각 1 · 假名 낱자 6 · 반복 부호 2
4배	8	4자 연각 4 · 3자 연각 4
규격 외	1	“こよひ(一説よ人)”
총계	2,131	



<사진 3> 필서체 필의·문자 미감·예외 문자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유려한 흘림체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고명하다. 상상급 1종(『徒然』(8))을 포함하여 상급이 무려 17종에 이른다. 중급은 7종인데, 중하급 1종(『小鏡』)을 제외한 나머지도 중상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하급이다.

72) 鈴木廣光(2009), 115-116.

4. 嵯峨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대부분의 판본이 가지런하다. 본문 행간에 배열한 성보의 방점도 가지런한데, 방점 문자의 크기 등으로 미세한 오차가 보인다. 假名의 특성상 정연하지 못한 느낌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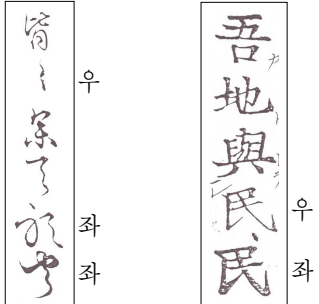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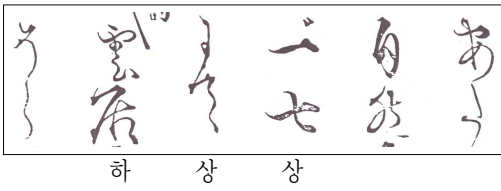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굵은 행이 간혹 보이거나(『百人』·『銘盡』·『撰集』), 빼뜯어진 경우도 여러 문자가 한꺼번에 약간씩 들어진 경우가 있다(『肖聞抄』(2)).

가지런한 편이나, 미세한 치우침이 꾸준히 보인다(『古文后』·『能花』).

4.1.2 橫列

거의 모든 판본이 가지런하나, 활자의 크기 차이, 연각 활자, 片假名 등으로 인하여 드물게 약간의 굴곡이 보인다.

대체로 맞추고는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히 소자에서 다소의 굴곡이 보인다(『古文后』).

『觀世流謠本』(2)五C1 “自然居士” 제1엽 상엽 5-6~11. 『史記』(12)故觀61 권4 제3엽 하엽 5-1~5	『觀世流謠本』(2)五C1 “自然居士” 제1엽 상엽 2~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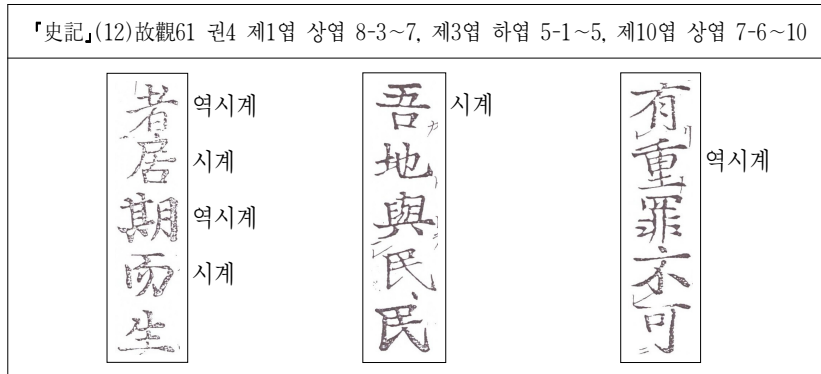
<사진 4> 字跡의 從行과 橫列(“상하좌우”는 치우친 방향)

4.2 字跡의 安置 角度

빼뜯어진 문자는 대부분의 판본에서 흘림체로 인하여 판단이 어려우나, 거의 보이지 않는다. 드물게 약간 빼뜯어진 경우가 보인다(『能花』·『徒然』(2)三Ba18·『徒然』(2)三Ba20·『銘盡』·

「肖聞抄」(2)).

다소 보이는데, 소자에서 삐뚤어진 정도도 심하고 빈도도 많다. 눈에 띄는 정도는 대소 문자를 합하여 엽당 5~6자 정도(「古文后」), 두드러진 경우는 대자 4~5자, 소자 7~8자 정도이다(「史記」).



<사진 5> 字跡의 安置 角度("시계, 역시계"는 삐뚤어진 방향)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문자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없고, 연하게 인출된 경우가 간혹 보인다(「謠本」(8)·「方丈」(2)三Ba26·「方丈」(2)三Ba28·「百人」·「伊勢」(3)·「伊勢」(1)).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주로 연한 엽에서 드물게 경미한 경우가 1~2자 정도 보인다. 자간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서 많지 않지만, 두툼한 용지인 까닭에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판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謠本」(2)五C2는 본문보다 1자 올려 배열한 정보의 첫 문자가 잘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보인다(「古文后」·「徒然」(3)·「銘盡」·「史記」·「撰集」). 「本朝古今銘盡」에는 가필의 흔적이 있다.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인다. 이는 활자가 기울어졌거나, 인출할 때 착묵 상태의 불완전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착묵이 불완전한 원인은 용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肖聞抄」(2)).

4.3.2 印出面의 水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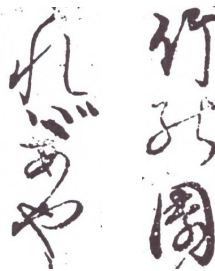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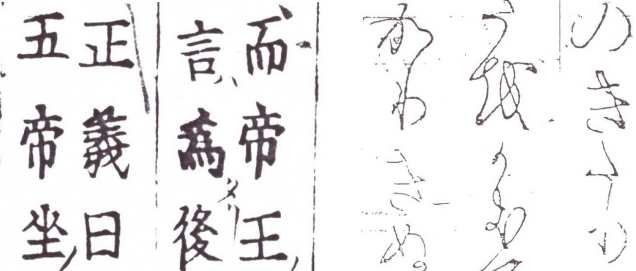
홀림체 필획의 굵고 가는 변화에 의하여 약간의 농담 차이가 보이거나, 목판본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균일한 편이다(『謠本』(8)·『伊勢』(3)).

묵색 농담 없이 균일한 엷도 적지 않고, 진하고 연한 문자가 공존하여 약간 차이나는 엷도 보인다. 두툼한 종이인 까닭에 자면의 높낮이가 완충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점과 운모 문양으로 인한 착목 불완전을 고려하면 묵색이 상당히 고른 편이다. 확실히 운모 문양이 많은 엷은 바탕색이 하야면서 묵색도 대체로 연하다. 묵색이 차이나는 엷은 불완전 착목으로 인하여 연한 문자가 있을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이는 기술보다는 운모 등 재료 상의 문제로 보인다(『謠本』(2)五C2·『久世30』·『久世(36)』·『徒然』(3)·『伊勢』(2)·『伊勢』(1)).

묵색 농담에 다소 차이가 난다. 두툼한 종이로 인하여도, 필획의 굵기 차이에 의해서도 농담차가 제법 보인다. 묵증이 몰려있어서 진한 경우와 불완전 착목으로 점선처럼 연한 경우가 공존하기도 한다. 기술 문제는 아니지만, 재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묵색이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묵색이 진한 엷은 농담 차이가 거의 없고, 『史記』의 광곽과 계선도 대체로 잘 인출되었다(『謠本』(2)五C1·『徒然』(2)三Ba20·『方丈』(2)三Ba26·『百人』·『史記』·『肖聞抄』(1)·『肖聞抄』(2)).

묵색 농담은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엷에 따라 다소 편차가 보이는데, 묵색이 진하여 비교적 균일하게 보이는 엷이 있는 반면에, 묵색이 다소 연한 엷은 농담 차이의 정도가 활자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다(『古文后』·『能花』·『徒然』(2)三Ba19·『徒然』(8)·『徒然』(2)三Ba18·『方丈』(2)三Ba28·『銘盡』·『小鏡』·『撰集』). 『徒然草』(8)914.5-11은 제20엽 상엽 6-17의 九, 7-16~17의 殿恩, 8-17의 枕 등 운모가 없는 부분인데도 착목이 불완전하여 거의 안보일 듯 연한 문자가 있다. 『撰集抄』는 그 편차가 커서 조판 팀이 다를 것으로 짐작될 정도이다.

『徒然草』(8)914.5-11 권상 제1엽 상엽 3-11~13·6-13~15	『史記』(3)Bc1 권1 제1엽 상엽 4~5-4~6, 『伊勢物語』(1)WA7-27 권상 제1엽 하엽 7~9-2~5
	

<사진 6>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嵯峨版의 일본서는 모두 판본 상에 광곽이 없다. 그러나 인판 상에서는, 본문의 활자를 조이기 위하여

인판의 좌엽과 우엽 각각의 사방에 20~30mm 정도 폭의 버팀목으로 지지하고 있다(『肖聞抄』(2)三Ba8).

광곽이 있는 2종의 한적은 네 꼭지점이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벌어진 정도는 1~2mm이다(『古文后』·『史記』). 『史記』에는 간혹 3~4mm도 보인다.

4.5 기타

4.5.1 界線 격자

판본 상에는 계선이 없지만, 인판 상에는 활자의 행간에 높이가 활자보다 낮은 계선이 존재한다. 이러한 계선이 인출할 때의 요동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잡목처럼 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흔적을 관찰하면 그 폭이 2.0~2.5mm(『伊勢』(1)), 3.0~3.3mm(『撰集』), 4mm(『肖聞抄』(2))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자를 배열하는 행폭은 11.7~14.5mm(『伊勢』(1)), 15.0~15.5mm(『撰集』)이다. 흑자는 『伊勢物語』에 사용된 정상 활자의 크기를 중 12.6mm × 횡 14.2mm로, 계선 폭은 2.6mm로 분석하였다.⁷³⁾

4.5.2 校正의 失手

『觀世流謠本』(8)911.6-149의 “班女” 제2엽 하엽 7-2의 略은 오자를 흰 먹으로 지우고 그 위에 찍어서 교정하였다. 『久世舞(30곡본)』의 오자는 호분을 긁어내고 그 위에 찍어서 교정하였다.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 권1 제10엽 상엽 5-17~18자의 之人은 잘못된 人之를 오려 내어 뒤에 반침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바꿔 붙였다.⁷⁴⁾ 『徒然草』(2)三Ba19와 『史記』도 같은 방법

73) 鈴木廣光(2009), 109-111.

74)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의 (2)三Ae16과 (2)三Bc6은 동일 판본이지만, 권1 제1~5엽·제12엽·제13엽 상엽 제1~3행·권9 제9엽 등의 8엽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보인다.

	권1								권9	
	제1엽		제4엽		제5엽		제12엽		제13엽	
	상엽	하엽	하엽		상엽	하엽		상엽	하엽	
행-자수	제8행	6-10	5-11	7-17우	4-3	2-12	3-13	6-3~4	제1~3행	7-6
(2) 三Ae16	13자 내려서 “武帝”	壯	書	齧	富	戕	壁	前赤	2자 내려서 16자쌍행	果
(2) 三Bc6	14자 내려서 “漢武帝”	壯	晝	壑	富	戕	壁	赤前	18자쌍행	晧

권1 제2~3엽은 새로 조판한 점 외에 문자의 차이는 없다. 다만 (2)三Ae16은 약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양자의 선후 관계는 판심의 재사용 여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2)三Ae16의 권1 제13엽을 제외한 7엽에 사용된 판심은 다른 엽에도 사용되었고, 목색도 비슷하다. 그러나 (2)三Bc6의 7엽에 사용된 판심은 다른 엽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목색도 다르다. 이 점에서 (2)三Ae16은 원판, (2)三Bc6은 부족한 몇몇 엽을 서둘러 추가 조판 인출하면서 판심도 다른 것을 사용하고, 배열 방식도 일부 바꾸고, 晝·戕·赤前·晧 등의 오류를 범한 보수판 = 이식자판으로 짐작할 수 있다. 壯과 壯, 齧과 壑, 富와 富는 통자이다.

으로 교정하였다.

4.5.3 兩面印刷 장정의 조판 배열

양면인쇄의 경우 장정 방법은 “2.2.2.10 (4) 兩面 印刷와 장정 형식”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이 경우의 조판은 장정 후 내용의 순서를 미리 파악하여 인판의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내용대로 조판하면 장정 후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방점과 假名 등 크기가 다른 활자를 사용하였음에도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중급 2종(「謠本」(8)·「伊勢」(3))을 포함하여 6종(「徒然」(2)三Ba19·「徒然」(8)·「伊勢」(2)·「伊勢」(1))이나 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5. 嵯峨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の 濃淡

5.1.1 全體의 墨色

묵색이 대체로 진하다. 이는 착묵이 불완전한 호분과 운모로 인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도적 배려로 보인다. 간혹 연한 편의 엽이 보이지만, 실제 농담 차이는 미세하다. 이는 묵죽 문제라기보다 호분 책지의 두툼하고 딱딱함과 운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謠本」(2)五C1·「謠本」(2)五C2·「謠本」(8)911.6-イ149·「徒然」(2)三Ba19·「徒然」(8)·「肖聞抄」(2)).

묵색이 대체로 진하다. 간혹 연한 편의 엽이 공존하여, 농담 차이가 제법 보인다(「古文后」·「能花」·「徒然」(2)三Ba1·「方丈」(2)三Ba268·「方丈」(2)三Ba28·「百人」·「史記」).

묵색이 진한 엽부터 연한 엽까지 다양하다(「久世(36)」·「徒然」(2)三Ba20·「小鏡」·「伊勢」(2)·「肖聞抄」(1)·「撰集」).

묵색이 대체로 연한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운모 문양을 사용하여 착묵이 다소 부드럽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간혹 진한 엽이 있어서 농담 차이가 보인다(「久世(30)」·「徒然」(3)·「銘盡」·「伊勢」(3)·「伊勢」(1))(<사진 6> 참조).

5.1.2 葉 간의 濃淡差

목색 자체의 농담은 대동소이하다. 전체적으로 다소 번진 듯한 엽과 착묵이 다소 덜 된 엽 간의 농담 차이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謠本』(2)五C1·『古文后』·『能花』·『徒然』(8)·『徒然』(2)三Ba18·『肖聞抄』(2)).

대부분은 진한 엽과 연한 엽이 혼재하여 엽간의 농담 차이가 제법 나타나고 있다. 운모가 많은 엽은 확실히 목색이 연하다. 동일 엽에서도 진하고 연한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史記』의 표 부분은 농담 차이도 크고, 착묵상태도 떨어진다.

대체로 연한 분위기에 간혹 진한 엽이 있어서 다소의 농담 차이가 보인다(『久世』(30)·『徒然』(3)·『銘盡』·『伊勢』(3)·『伊勢』(1)). 『伊勢物語』(1)WA7-27은 연한 엽에서 착묵 상태가 충분하지 못하여 필획이 점선으로 끊어지듯 불안정한 곳이 간혹 보인다. 거의 보이지 않을 듯한 문자도 있다.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부분 번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목색이 진한 엽은 착묵이 과하여 판면 전체의 문자 필획 간 목즙이 번진 듯이 진한 현상이 적지 않게 보인다. 두툼한 책지의 경우도 힘껏 인출하여 굵고 진하거나 필획 간 목즙이 번진 경우가 간혹 보인다(『謠本』(8)·『久世』(30)·『方丈』(2)三Ba28·『銘盡』·『伊勢』(2)). 『本朝古今銘盡』은 반대로 착묵이 불완전하여 연하거나 희미한 경우도 있다.

드물게 번진 문자나 부분 번짐이 보인다. 필획 간 목즙이 번진 경우가 있다. 번짐의 정도는 다소 심한 경우도 가벼운 경우도 혼재하고 있다(『謠本』(2)五C1·『謠本』(2)五C2·『久世』(36)·『能花』·『徒然』(2)三Ba18·『方丈』(2)三Ba26·『百人』·『小鏡』·『伊勢』(3)·『伊勢』(1)·『肖聞抄』(2)). 『徒然草』(3)特60-22는 초반의 10엽 정도에서 목색이 과하여 번진 문자가 있다. 이후에도 간혹 필획 간 목즙이 번진 경우가 보인다. 이로 인하여 판면 전체의 착묵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다. 금속판에 수성 목즙을 사용한 것처럼 균일하지 못한 엽도 있다.

부분 번짐이 간혹 보이고, 필획 간의 목즙이 반영되어 번진 경우도 있다. 측면 반영 또는 거의 목등이 된 경우도 있다. 이는 완전 착묵을 위하여 목즙을 다소 과하게 사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솔림과 운모에 의한 불완전 착묵이 보편적인 현상이다(『古文后』·『徒然』(2)三Ba19·『撰集』·『徒然草』(8)914.5-11은 번진 엽이 주로 초반과 후반부에 많은데, 전체 번짐이 3엽, 부분 번짐이 20엽 정도. 이 외에도 번진 문자가 시종 보인다.

거의 엽 전체가 번진 경우도 있고, 부분 번짐은 크고 작은 경우가 자주 보인다. 밀대로 힘껏 인출하

여 약간의 요철과 함께 필획 간 목즙이 번진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인다. 반면에 착묵이 불완전하여 부분적으로 연한 곳도 있다(『徒然』(2)三Ba20 · 『史記』 · 『肖聞抄』(1)). 『伊勢物語聞書(肖聞抄)』(1)WA7-29는 진한 엽의 일부가 착묵이 안된 채 두 번 인출한 듯 연한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

5.2.2 墨汁의 솔림

묵색을 연하게 사용하여 솔림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徒然』(3) · 『銘盡』 · 『伊勢』(3)).

묵색이 진한 엽에서 목즙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서 솔림 현상이 보인다. 두툼한 책지인 까닭에 힘껏 인출한 결과 목즙이 물리거나 측면이 다소 반영되어 굵고 진한 경우가 있다. 그 반대로 문자의 윤곽은 인출되었는데, 필획 중간은 하얀 공백처럼 연하게 착묵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이 없는 엽은 묵색이 매우 균일하다. 반면에 착묵이 잘 안되어 한 번 도포에 두 번째 인출한 것처럼 연한 부분도 간혹 보인다(『謠本』(2)五C1 · 『謠本』(2)五C2 · 『久世(30)』 · 『久世(36)』 · 『徒然』(2)三Ba18 · 『伊勢』(2) · 『伊勢』(1)).

밀대로 힘껏 인출하여 진한 엽과 연한 엽 구별 없이 요철과 함께 필획 측면이 반영되어, 시종 엽마다 굵고 진한 문자가 적지 않다. 엽 전체가 측면 반영으로 번짐에 가깝게 진한 경우도 쉽게 보인다. 상당한 솔림 현상도 공존하고 있다. 이는 운모로 인한 착묵 불완전을 미리 감안하여 목즙의 농도를 진하게 하고 도포 양도 다소 많이 하여 힘껏 밀어낸 결과로 보인다(『古文后』 · 『能花』 · 『徒然』(2)三Ba19 · 『徒然』(8) · 『徒然』(2)三Ba20 · 『方丈』(2)三Ba26 · 『百人一首』 · 『史記』 · 『小鏡』 · 『肖聞抄』(1) · 『肖聞抄』(2) · 『撰集』). 『伊勢物語聞書(肖聞抄)』(2)三Ba8은 첫부분 2~4엽 정도에서만 솔림이 보인다. 『史記』와 『方丈記』(2)三Ba28에는 거의 목등이 된 경우도 있다.

5.2.3 字跡의 깨짐

대부분의 판본에서 자적이 깨지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거의 예외적으로 호분, 운모 등 재료에 의한 불완전 착묵이 드물게 1~2자 보이는 경우가 있다(『謠本』(2)五C2).

5.3 雜痕과 雜墨

판면이 깨끗하여 잡묵이 없다(『謠本』(8) · 『久世(30)』 · 『徒然』(8) · 『徒然』(3) · 『肖聞抄』(1)).

대부분은 미량의 잡묵이 드물게 보이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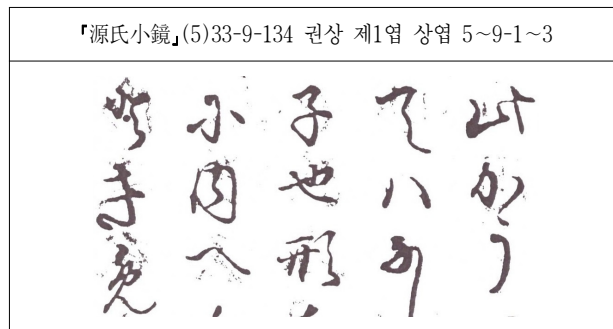
미량이 꾸준히 보이거나(『銘盡』), 대소량이 드물게 보인다(『史記』).

5.4 二重 印出

이중 인출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謠本』(2)五C2·『謠本』(8)·『古文后』·『久世(36)』·『能花』·『徒然』(8)·『徒然』(3)·『銘盡』·『伊勢』(3)).

이중 인출의 흔적이 간혹 보이거나(『謠本』(2)五C1·『久世(30)』·『徒然』(2)三Ba19·『方丈』(2)三Ba26·『方丈』(2)三Ba28·『百人』·『史記』·『伊勢』(2)·『撰集』), 여러 곳에서 보이기도 한다(『徒然』(2)三Ba20).

이중 인출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徒然』(2)三Ba18·『小鏡』·『伊勢』(1)·『肖聞抄』(1)·『肖聞抄』(2)).



<사진 7> 이중 인출 흔적

5.5 印出의 方向과 强度

인출의 방향과 강도는 인출면보다 배면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嵯峨版의 경우 대부분 판본이 두툼한 책지를 사용하여 인출에 의한 압박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인출 후 접합했든, 접합 후 인출했든 간에 양면 인쇄로 인하여 책지의 배면에 나타나는 인출 압박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판본에서는 인출의 방향과 강도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부 판본에서만 밀대로 힘껏 인출하여 나타난 요철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古文后』·『能花』·『徒然』(2)三Ba20). 그러나 인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없다.

5.6 着墨의 均整度

거의 목판에 비길 만큼 묵색도 균일하고, 판면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아름답다(『伊勢』(3)). 쓸림이 다소 있기는 하나, 대체로 고른 편이어서 안정되고 균일하다(『謠本』(2)五C2·『伊勢』(2)). 대부분 판본이 전반적으로 묵즙이 다소 과하여 번짐이 적지 않고 착묵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다.

쏟림 현상이 두드러진 경우도 있다. 한 문자에서도 일부 필획에 따라서 쏟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에 운모의 영향으로 묵색이 진하면서도 착묵이 불완전하여 필획 중간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다. 연하거나 진한 엽이 다양하게 교차하고 있어서 농담 차이가 꾸준히 보인다. 착묵이 불완전하여 묵색이 희미한 경우도 간혹 있다. 대체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고 있다. 『伊勢物語聞書(肖聞抄)』(1)WA7-29는 일본서 중에서도 기술 수준이 낮은 판본에 속한다.

5.7 兩面 印刷 책지의 접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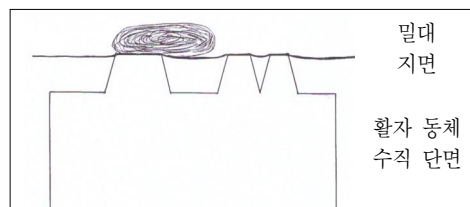
嵯峨版의 인출에 이르는 책지의 가공 과정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식은 ① 2~4장 접합, ② 호분 칠, ③ 운모 문양 인쇄, ④ 인출 순이다. ②③④의 과정은 변함없는데, 최근 ①의 과정을 ④의 다음에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인출 후 접합하였다는 것이다.

인쇄 기술적 시각에서 양면 인쇄한 판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모두 밀대로 힘껏 밀어서 필획 측면의 묵즙이 반영되어 필획이 대체로 굵다. 그런데 지질은 호분을 많이 먹인 관계로 보통 책지보다 훨씬 두껍고, 힘의 정도가 오늘날의 양지보다 더 강하다. 이 정도 강도의 책지를 인판 위에서 밀어서 필획 측면의 묵즙이 반영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출 후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힘껏 밀어서 측면 묵즙이 반영되려면 요철 현상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현재 요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출 후 접합하면서 퇴화한 것으로 보인다.

묵색이 진한 부분도 뒷면에 묵즙이 전혀 투영되지 않았다. 이는 단면 인쇄 이후 장정 과정에서 접합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양면 인쇄 같으나, 모서리 접힌 곳을 펴보면 2장으로 딱 갈라진다. 이 역시 단면인쇄 후 2장을 접합한 방증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양면 인쇄본이 이 과정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다.

책지에 요철이 나타나려면, 밀대가 오늘날의 ばれん처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웠을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책지의 요철 현상 개념도

5.8 綜合 評價

호분과 운모로 인하여 착목이 불완전하거나, 연하게 인출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목즙을 대부분 진하게 사용하였다. 그 결과 판면 목색의 부정적 현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착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목색 불균일로 인하여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고 있다.

상급에 해당하는 판본은 3종(『徒然』(8)·『伊勢』(3)·『伊勢』(1))이고, 대부분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6. 嵯峨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嵯峨版의 조각술은 일본의 활자판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최우수에 해당한다. 조판술 역시 크기가 다른 활자도 동시에 배열하여 깨끗한 판면을 인출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하다. 그러나 호분과 운모 등 재료의 특성으로 인한 목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인출술은 많이 떨어진다.

고급의 서품을 위하여 획기적인 재료와 미술적 디자인으로 전에 없는 판본을 생산하였으나, 인쇄 기술적 측면에서는 호분과 운모에의 착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체의 기술 수준을 상쇄할 뿐 아니라 서품도 떨어뜨리고 있다. 嵯峨版의 인쇄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에 해당한다.

7. 結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嵯峨版 활자본이란 角倉素庵과 本阿彌光悅 등이 京都의 嵯峨 지역에서 慶長 11년(1606)경부터 약 10여 년간 木活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15종 서적 36판중(판본)을 지칭한다. 이중 角倉素庵에 의한 慶長 13년 이전 판본은 5종 6판중, 本阿彌光悅에 의한 판본은 10종 30판중이다. 목판본도 4종 5판중이 있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부분 광곽과 계선이 없고, 한적 2종만 있다. 반 엽 7~12행 13~20자로 다양하다. 小註雙行은 3종에만, 판심의 판심제·어미·권차·장차는 2종에만 표시하고 있다. 일부 袋綴裝에서는 권차와 장차가 인판 상에는 조판되어 인출되었지만, 장정 과정에서 재단되어 그 편린이 서뇌 속에 숨어있다. 양면 인쇄한 열첩장의 경우는 권차와 장차가 없다.

嵯峨版의 특징으로 假名와 연각 활자·방점 활자·호분, 다색, 운모 등의 장식 책지·양면 인쇄와 열첩장·음각 활자·목판 병용 등을 들 수 있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보여서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함은 물론, 서체의 미감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매우 세련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정연한 편이다. 빼뺀어진 문자는 많지 않다. 다만 墨色 濃淡은 다소 균일하지 못하다. 광곽은 2종뿐인데, 꼭지점이 1~2mm로 작다. 교정은 충실한 편이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농담 차이가 적지 않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쓸림 등으로 균정하지 못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겨우 중중급.

(5) 전반적인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상급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貴重書蒐選圖錄解題』. 東京: 汲古書院, 1997.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閱覽카드目録』. 東京: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慶應義塾圖書館編. 『慶應義塾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東京: 慶應義塾圖書館, 1958.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普通舊籍目録』.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0.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13년 열람.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舊籍總目』.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3.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8.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録』.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新編帝國圖書館和古書目録』.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特藏組編輯. 『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二版)』. 臺北: 國立中央圖書館, 1986.

宮內廳書陵部編. 『(宮內廳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録(上·下·增加)』. 東京: 宮內廳書陵部, 1952·1953·1968.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録』.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録(上·下)』.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 內閣文庫編. 「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一・二・三」.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6・1956・1981.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誌解題 I-IV」. 東京: 東洋文庫, 1990・1998・2000・2004.
-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錄」. 東京: 東洋文庫, 1934.
-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錄: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經部(東洋文庫之部)・史部・子部』. 東京: 東洋文庫, 1978・1986・1993.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東京: 東洋文庫, 1967.
- 反町茂雄編. 「弘文莊古活字版目錄」. 東京: 弘文莊, 1972.
- 反町茂雄編. 「弘文莊善本目錄」. 東京: 弘文莊, 1977.
- 思文閣編. 「思文閣古書・資料目錄: 善本特集第3輯」. 京都: 思文閣, 1991.
-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資料圖錄編集委員會編.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資料圖錄」. 東京: 早稻田大學圖書館, 1990.
- 早稻田大學圖書館編.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漢籍分類目錄」. 東京: 早稻田大學.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錄 和漢書之部 第一・二・三・四」.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40・1951・1960・1998.
-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目錄: 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61.
- 天理圖書館編. 「善本圖錄」.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97.
- 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古義堂文庫目錄」.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56.

2. 저술·논문류

- 岡崎久司. “嵯峨本再考.” 『特別展光悅と能-華麗なる謠本の世界』. 熱海市: MOA美術館, 1999. 23-29, 55, 59, 131-139.
- 鈴木廣光. “嵯峨本『伊勢物語』の活字と組版.” 張秀民 등저. 『活字印刷の文化史』. 東京: 勉誠出版, 2009, 105-126.
-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 東京: 富山房, 1975.
- 森上修. “初期古活字版の印行者について-嵯峨の角倉(吉田)素庵をめぐる.” 『ヒブリア』 100(1993. 10). 148-175.

-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東京: 柏書房, 2000.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 大津市: 滋賀縣教育委員會, 2000.
-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 解説篇』. 東京: 汲古書院, 1976.
- 井上宗雄等編.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 曹炯鎮. “日本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2(2017. 12). 145-168.
- 曹炯鎮. “日本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7(2019. 3). 49-79.
- 曹炯鎮. “日本 嵯峨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2019년도 춘계 한국서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년 4월 26일,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70-82.
- 川瀨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 川瀨一馬. 『日本書誌學之研究』. 東京: 講談社, 1971.
- 川瀨一馬. 『嵯峨本圖考』. 東京: 一誠堂, 1932.
- 和田萬吉. 『日本古活字本研究資料』. 東京: 清閑舎, 1944.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ung-Jin. 2003. “A Study on Appraisal of Early Typograph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5: 369-406.
- Cho, Hyung-Jin. 2017.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Koya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2: 145-168.
- Cho, Hyung-Jin. 2019.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Baizu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7: 49-79.
- Cho, Hyung-Jin.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Saga Edition in Japan.” In *Proceedings of the 2019 Spring Conference, Korea Society of Bibliography*, April 26, 2019, Cheongju: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70-82.

